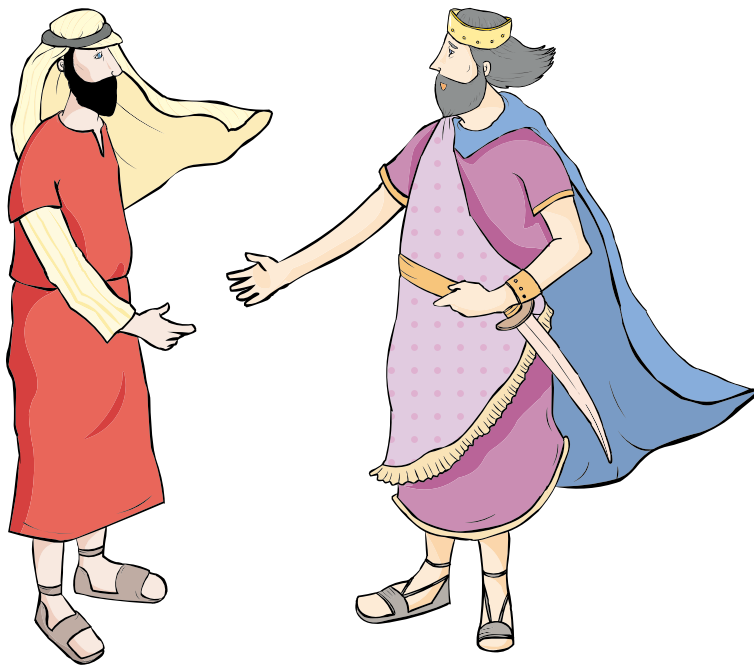


머리도 3·4학년 리사 도근

제 2 권





발행처 영생의말씀사
기 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초등부
디자인 문서선교부

주 소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492번길 10 서울중앙교회선교센터 3층
연락처 070-7121-1280 문서선교부
홈페이지 www.jbch.org (생명의말씀선교회), school.jbch.org(교회학교)

차례

3,4학년 머릿돌 2025년 제2권

- 14.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4 4월 6일
- 15. 오래 참은 이삭 9 4월 13일
- 16.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17 4월 20일
- 17.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23 4월 27일
- 18. 총리가 된 요셉 28 5월 4일
- 19. 형들을 용서한 요셉 35 5월 11일
- 20.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42 5월 18일
- 21.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47 5월 25일
- 22. 하나님의 유월절 52 6월 1일
- 23.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58 6월 8일
- 24. 하늘에서 내려 온 만나 63 6월 15일
- 25.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68 6월 22일
- 26.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73 6월 29일



이것만은 기억해요!
78

14

이삭을 바친 아브라함

창세기 22장 1절 ~ 19절, 히브리서 11장 17절 ~ 19절



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하나님: 아브라함아!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**1번제로** 바치거라.

아브라함: 예, 하나님!

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.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.

이삭: 아버지!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,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?

아브라함: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.

산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놓았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꿰뚫 묶어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

¹번제 :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우는 제사

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
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(야고보서 2:26)



14

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.
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하나님: 아브라함아, 아브라함아!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! 네가 너의
하나 뿐인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나를 얼마나
²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.

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. 아브라함은 그
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크게
기뻐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, 나중에 그 자손으로 예수님께서
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.

²경외 : 공경하고 두려워함.



오늘의 공부

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

1.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.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?

2.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나요? 바른 것에 ○표 하세요.

안 돼요!
절대로 바칠 수
없어요!



()

하나님!
아내와 의논해 보고
결정할게요.



()



()

한참 생각하다가 3일이
지난 후 갔다.



()
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
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
바치러 갔다.



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었습니다.
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.

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하나님께 순종해요

아래 말씀을 듣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
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중
하나입니다.



맞아 오늘부터 엄마가 말씀하신
대로 컴퓨터 게임 시간을
더 줄이고 성경을 읽어야겠다.



매일 같은 말씀만 하네.
아~ 지겨워.



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
친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해요.



다음 주에 같이
교회 가자.



아휴, 넌 정말 미워...



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요?



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.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입니다.

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
(야고보서 2:22)



예화

순종의 상을 받은 신하

옛날 중국의 순 임금¹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.

“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**망태기** 하나씩을 줄 터이니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!”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망태기에 물을 담으려고 하지도 않았습
니다.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계속 물을 퍼 담았습니다.

망태기에 물을 부어도 계속 쏟아졌지만 어찌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하는
마음으로 우물에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았습니다. 그러자 우물의 물이 다했는지
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을 길어 수가 없었습니다. 신하는 허리를 펴고 우물을
들여다 보았습니다.

그런데 바닥 한 가운데에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신하는 얼른
그것을 올려다가 임금님께 드렸습니다.

“수고했다!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.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
마련한 상급이니까.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.”

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
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.

¹망태기 : 물건을 담도록 새끼줄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(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).

<p>부모님 란</p>	<p>선생님 란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